



한덕수 국무총리, 내수활성화 행사인 '동행축제'가 열리는 통인시장 방문

-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매 및 소상공인 격려 등 민생현장 살피
- 어린이와 함께 체험 행사 참여 · 깜짝 라이브 방송 출연 등 동행축제 홍보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0일(월) 오후, 동행축제 연계 행사가 열리는 종로 통인시장(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)을 방문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행사 '동행축제'를 홍보하고,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.
- 통인시장은 동행축제가 시작된 2020년 이래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, 올해 또한 다양한 연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동행축제에 앞장서는 전통시장으로, 한 총리는 동행축제를 체험·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통인시장을 방문하였다.

* 주요 참석자 : (정부)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, (시장) 정흥우 통인시장 상인회장 등

《 통인시장 개요 》

- ◇ 1941년 조성된 공설시장을 모태로 하는 역사 깊은 시장
- ◇ '엽전을 사용하는 전통시장*' 등 이색적인 요소로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
 - * 현금으로 교환한 엽전을 활용하여 원하는 먹거리 등을 구매
- ◇ '키즈마켓 데이', 동행축제 로고가 부착된 장바구니 증정, 구매 영수증으로 참여하는 행운의 룰렛 및 뽑기 이벤트 등 동행축제 연계 행사를 진행

- 올해 5년차를 맞이한 동행축제(5.1 ~ 5.28)는 위축된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, 대형 유통사, 중소·소상공인, 전통시장 등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,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, 전국 50여곳의 지역행사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·관촉전이 진행 중이다.

- 이날 한 총리는 통인시장에서 체험행사 참관, 점포 방문 및 상인 격려, 물렛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.
 - 먼저, 한 총리는 어린이 체험행사인 ‘꼬마김밥 말기’에서 김밥을 마는 원아들을 격려한 후 장난감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였다.
 - 이어서 시장 내 점포들을 방문하며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한과, 기름떡볶이, 과일 및 채소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현장을 살폈으며, 구매 영수증을 통해 ‘물렛이벤트’에 참여하여 경품을 수령하는 등 방문 고객들과 동행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.
 - 아울러, 공영쇼핑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깜짝 출연하여 동행축제의 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.
- 한 총리는 “이번 5월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리는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하면서, “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, 지역축제 현장에 방문하시어 중소·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제조정실	책임자	과 장	노진상 (044-200-2221)
	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강하늘 (044-200-221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